

이제는 유물이 된 초간본 시집들

고서처럼 들고 싶은 한 시인의 시집 순례기

김명인 | 시인 · 고려대 문예창작과 교수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책의 앞날에 관한 논란이 새삼스러워졌다. 인류의 지식이 무제한적으로 사이버 스페이스에 흡수되고, 디지털화한 새로운 방법으로 출력되는 한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의 미래가 여전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난다. 어떤 형태로든 책이라는 모습은 살아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과 같은 종이책의 형식을 띠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책의 미래 또한 불가분 전자문명의 운명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현매체의 빠른 발전은 우리가 관행으로 받아들이던 지식체계의 앞날 또한 순식간에 바꿔놓을 전망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일찍이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화를 이끌고 온다. 글의 저술과 전달이 손쉬워지면서 누구라도 책의 저자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 공간을 헤집으며 잠재적인 독자들을 상대하면서 자기의 책을 팔 수도 있을 것이다. 출판이 번거로웠던 종이책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저자들이 새롭게 데뷔한다. 그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솟아오른 저자와 독자들에게 의해 재편될 출판시장 또한 지금의 형태로 존속할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사이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런 변화는 불과 십수년 안쪽의 결과라는 사실이 놀랍다. 제록스 복사기의 출현을 경이롭게 바라봤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인터넷 출판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개인 컴퓨터로 거대한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어느 때나 새로운 책과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출판된 책조차 쉽게 구할 수 없어 얼마나 애태웠던가. 연구자라면 누구나 몇번씩은 겪었을 그 고생담을 새삼스럽게 떠올려보는 것은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는 문명에 대한 새삼스러운 두려움 때문일까.

석사논문을 준비할 때였다. 예나 지금이나 문학 연구자에겐 원전참조가 중요하다. 김영랑의 시를 텍스트로 정해놓고도 정작 원전을 대조해볼 길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복사본이 나돌긴 했으나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 세대가 다행인 것이 복사본을 참조할 수 있었으니, 필사하는 노역을 면제받았던 셈이다. 누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느냐가 학문의 성과로 직결됐으므로 자연히 책을 모으는 일이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의 유행이었

고 그만큼 열성일 수밖에 없었다. 헌책방을 순례한다던가 소장자를 수소문해서 복사한다던가 빌려보던가, 하여튼 자료가 될 만한 것을 확보해야만 했다. 생활비를 버느라고 야간 고등학교 교사를 겸하고 있던 그때 흑시나 해서 나는 학생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복사본도 가능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불가분 필사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베껴 써야 하는 것이다. 필사의 경험은 시를 습작하던 대학시절의 필자에게도 강렬하게 남아 있다. 마음에 드는 시를 노트에다 베껴놓고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시를 공부했다. 그때 복사기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필사하면서 기억했던 선배의 시들이 내 창작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다. 직접 베껴보면서 그 속에 몰입해 가는 학습은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공부라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책에 대한 애착이 각별해짐은 말할 나위가 없다.

들에게 집에 오래된 책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했다. 고서일수록 희귀본일 테니까.

몇 명이 한두권의 책을 갖고 왔지만 참조거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떤 반의 학생이 작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무심코 풀어본 보자기 속에는 《박용철 전집》과 《영랑시집》, 그리고 시인 김현구의 육필원고, 1930년대 잡지 몇권이 들어 있었다. 들어보니 그 학생이 김현구 선생의 외손녀였다. 김현구라면 1930년대에 발간된 정지용·김영랑·박용철 등의 《시문학》 2호부터의 그 동인이 아니던가. 나의 주된 관심 분야가 그들이 활동하던 당시의 우리 시였으므로 안심맞춤의 자료를 입수한 셈이었다. 참고하고서 돌려주겠다 했지만 《영랑시집》과 《박용철 전집》은 아직도 내 수중에 있다. 그 책만은 갖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그 책들을 다시 꺼내 본다. 《영랑시집》은 4·6판에 53편의 시가 실려 있으나, 쪽수를 매기지 않아 본문에는 페이지가 없다. 양장본에 은박으로 인쇄한 속표지며 세련되게 꾸민 곁장을 별지로 입힌 모양이 지금 봐도 호사스럽다. '경성부 견지동 한성도서주식회사' 인쇄, '시문학사' 발행의 이 시집은 김영랑의 숭배자며 절친한 친구였던 박용철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집답게 지질 또한 미색의 최고급이다. 1935년에 출판됐으니 아마 이삼백부만 찍은 까닭에 출판 당시부터 이미 희귀본이었을 것이다. 《박용철 전집》은 국판 양장본 케이스입, 1·2권에 각 7백여쪽, 금박 제호에 고급 지질로 인쇄돼 있다. 박용철의 유고집 형식으로 출간된 이 전집은 그의 미망인 임정희가 발행인이며, 출판사는 없고 총판만 '동광당서점'으로 인쇄돼 있다. 친구들의 정성으로 발간된 책이리라. 그리고 보니 나는 석사논문을 작성하면서 이들 자료를 적시에 퓌 요긴하게 활용했던 셈이다.

1930년대의 시집들이 2백부나 3백부 한정판으로 출간됐다는 것은 백석의 시집 《사슴》으로도 입증된다. 이 시집은 1936년에 출판됐는데, 1백부 한정판이다. 필자가 갖고 있는 것은 물론 복사본이며, 1980년 무렵에 위우인 평론가 김인환 교수로부터 얻은 것이다. 백석 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금지돼 있던(미해금 시인이었으므로) 그 무렵, 그만큼 자료도 구하기 어려웠다. 《사슴》을 되풀이해 읽으면서 그의 시를 연구하고 싶어졌으나, 그때까지 정리가 안돼 있고, 그의 시에 관한 언급도 단편적인 것뿐이었다. 당시의 신문·잡지 등을 뒤지면서 필자가 찾아낸 시들이 다시 50여편, 시집에 실린 시들과 합쳐 <백석시고>라는 제목

으로 논문을 발표한 것이 1983년 초니, 아마도 이 시집을 얻어볼 계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므로 그때 연구자라면 누구나 책을 탐냈다.

1백부나 2백부 한정판의 책을 출간해 지기꺼리 나눠 갖는다는 것은 저자 자신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책에 대한 사려가 그만큼 깊은 저자라야 저술할 엄두를 낼 일임은 물론이다. 책을 처음 낼 때의 설렘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첫시집 《동두천》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던지. 그만큼 첫저서는 첫사랑처럼 소중한 것이다. 모든 저자들에게도 그 첫경험은 한결같은 것이다.

복사본도 가능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불가분 필사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베껴 써야 하는 것이다. 필사의 경험은 시를 습작하던 대학시절의 필자에게도 강렬하게 남아 있다. 마음에 드는 시를 노트에다 베껴놓고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시를 공부했다. 그때 복사기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필사하면서 기억했던 선배의 시들이 내 창작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다. 직접 베껴보면서 그 속에 몰입해 가는 학습은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공부가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책에 대한 애착이 각별해짐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디지털의 문화 공간에서 컴퓨터로 글을 쓰고 읽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종이로 만든 지금의 책들은 촌스러워질지 모르겠다. 글자 한 자 한 자를 낱낱이 체자해서 조판하던 활자시대의 관행도 이미 원시가 돼버린 오늘, 우리가 읽는 이런 책의 모습 또한 지금처럼 보존될지 알 수 없다. 이제 모든 지식은 인터넷 속에 있고 다만 정보의 취사와 조립만으로도 얼마든지 한권의 지식체계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속도가 존중받는 시대에 누가 느릿느릿 읽어야 하는 낱장의 책에 매달릴 것인가. 앞으로 나타날 전자책과 영상매체는 속도라는 기능을 살리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때 가면 종이책의 모습은 박물관의 유물은 아닐는지. 우리는 어제가 벌써 유물인 시절을 살고 있다.

다들 살아남으려고 호들갑인 시대에 아직도 만년필로 시를 쓰면서 나는 생각한다. 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되도록 천천히 나아가간다면... 고서로 남아간다면... 펄프 냄새나 매캐하게 풍기면서 한쪽 구석에 처박히는 책일 뿐인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골동품일까! ●